1. 그는 하나님을 늘 눈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24시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일을 의뢰하며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돈이 많아서 흔들리지 않은게 아닙니다.
남부러운 명예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힘이 되어 주시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누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눈 앞에 모시고 살아가며, 모든 일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2. 다윗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그러자 아직 상황과 환경이 풀리기 전인데도
그는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웠습니다. 마음 안에 주님의 빛이 가득 차게 되니까 이상하게
평안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전 재산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게 됩니다.

추석은 각종 과실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명절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실정은 우리 입에서 감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 안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셔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이번 추석이 주님만 의지해나가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

찬송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 다함께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문 ····· 주기도문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